사랑하는 교우들께 소식 전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단기 선교를 온 제가 이 페이지에 적으려니 죄송하면서도 감격적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몇 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열어보면 수십통씩 들어온 메일들을 정리하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후레스노에서는 너무 당연하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6월 19일)로서 이 곳의 신학교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르완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학석사들이 여섯명 배출되는 졸업식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과 영상들을 찍었지만 여기서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돌아가서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지역교회로 나가 설교하고 예배 후 점심 후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악수하고 껴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 후 점심을 기다리면서 가져간 sanitizer로 손을 닦을 때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의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제 손에서 나는 냄새들을 그대로 가진 채는 밥을 먹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에어컨은 없습니다.

예배 후 교회 안에서 점심을 먹고 나간 지역전도집회는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대집회였습니다. 제가 강사였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위해 필요한 300불 정도의 경비를 부담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종강이 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열리는 여러 곳의 전도집회에 더 가게 됩니다. 가보니 여기서는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는 경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의 큰 잔치였습니다. 지역의 교회와 학교들에서 많은 찬양, 댄싱 팀들이 동원되어 설교 전의 두 시간 이상을 그야말로 온통 찬양과 경배로 채웠습니다. 저의 영어 설교를 현지어로 통역한 Appo라는 Anglican 교회의 목사님은 참으로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설교 후 예수를 영접하기로 나온 이들을 안수하는 시간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너무 길게 쓰면 읽으시는 것이 부담되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현재 저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사실은 비로소 어제부터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져 온 약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닷새 동안 이웃나라 우간다에서까지 참석한다는 대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역의 주인 교단격인 성공회와 오순절, 감리교단과 루터란 그리고 여기서는 소수 교단인 장로교단이 함께 참여하는 대집회입니다. 부족한 제가 네 사람의 강사 명단에 들어가 있어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 박광래 목사